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18일 새벽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리재일동지, 리병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바람이 초당 25m로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저 멀리 동쪽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아침 7시 40분경, 흰 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명봉과 기암절벽들에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오르고 삼시에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속에서 진한 불덩어리가 솟구치며 백두산해돋이가 시작되였다.

해돋이를 맞이한 백두산은 세찬 눈보라, 돌풍을 일으키며 천지조화를 일으켰다.



성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붉은기를 휘날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백두산이 칼바람을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며 화답하였다.

맹잔 바람이 눈갈기를 날리고 돌가루를 뿌리며 눈앞을 가리웠으나 전투비행사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백두산의 기상은 볼수록 장엄하다고, 백두산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발걸음

따라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혁명가호를 높이 부르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백두산마루에 도착하였다.

백설을 날리며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에 오른 답사행군대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4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